

목포시, 북항광장에 택시쉼터 개소

주차 편리·주변 식당 많아 쉬어가기 용이한 입지 냉난방·안마의자·혈압 측정기 등 편의시설 갖춰

목포시는 북항 공영주차장 내에 '택시쉼터'를 마련하고, 김종식 시장과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북항광장 공영주차장 내에 40㎡ 규모로 조성된 택시쉼터는 주차가 편리하고 주변에 식당이 많아 택시 종사자가 점심식사 후 쉬어가기도 용이한 입지적 장점이 있다.

또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냉난방시설, 안마의자, 혈압 측정기, 무료 와이파이 등 각종 편의

시설을 갖췄다.

목포시의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택시쉼터 조성은 민선7기 공약사업이다. 이번 택시쉼터 개소로 목포시의 민선7기 택시 관련 공약인 공공형 100원 택시 운영 지원,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지원, 목포 브랜드콜 택시 '목포 낭만콜' 통합 지원 등 4가지 모두 실현됐다.

김종식 시장은 26일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택시쉼터



조성했다"면서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안전운전과 승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영암군, 건설기계 등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영암군은 아파트, 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와 사업용(화물, 버스)자동차에 대해 3월 25일부터 5일간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거 밀집 지역, 공동주택이 이면도로 중 불법 밤샘주차가 빈번해 차량 소음 불편 민원이 많고 운전자 시야확보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였다.

특히,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량은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음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운전자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동안 군민들로부터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영암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차와 사업용 화물, 버스 불법 밤샘주차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해 왔다.

영암군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주차는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밤샘주차(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자동차(화물, 버스)는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불법 밤샘주차 단속으로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산 옥당 동부 재배 신청 접수

다음달 9일까지 신청...영광산 동부 자급체계 구축사업 추진

영광군은 관내 동부 재배단지 50ha 조성, 50톤 생산을 목표로 2021년 '영광산 동부 자급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광모시외송편 소의 재료인 동부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가는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하고, 가공업체는 지리적표시제를

기반으로 판매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광산 동부는 영광모시외송편 지리적표시품 유지에 필수적이며, 수확량 증대를 위해 현장 실증시험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으로, 많은 농가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대상은 관내 농업인으로 최소 신청면적이 0.1ha 이상이며, 신청희망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에서 4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보유한 우량 종자를 무상 보급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5월에 동부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 영광농협을 통해 동부를 구매하여 관내가공업체에 분양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무교육

자체 심화평가 및 회계 교육 실시 공공성·투명성 확보 기대



함평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25일 함평군 전산교육장에서 관내 11개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및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 대비를 위한 심화평가 교육과, 2021년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집행 기준을 숙

지하고 회계양식을 일원화 해 공공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 회계교육으로 진행됐다.

정화자 가족행복과장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맞춰 심화평가 및 회계교육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함평=김광훈기자

무안군, 낙지 유통포장재 지원사업

28개 어촌계 457어가 포장재·아이스팩 10만 7천개 공급

무안군은 지난 24일부터 무안의 대표 수산물인 갯벌낙지 유통포장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 낙지는 게르마늄성분이 풍부한 청정 갯벌에서 자라 부드럽고 육질이 쫄깃한 것이 특징이며, 지방이 거의 없고 타우린과 무기질, 아미노산이 많아 조혈강장 작용과 원기회복에 도움을 준다.

무안 갯벌낙지는 주로 청계만, 탄도만, 함해만 등지에서 생산되며, 생산량은 연간 256톤이다.

군은 무안 낙지가 타 지역 수산물과 차별화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낙지생산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해 28개 어촌계 457어가에 포장재와 아이스팩 10만 7천



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생산 어업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갯벌낙지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군, 김 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 준공식

"신안군 김 수출 대표지역으로 발돋움 기대"

신안군은 지난 24일 압해읍에 위치한 홍도식품 광장에서 김 산지가공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홍도식품은 1992년 무안군 삼함읍에 설립된 김 유통업체로 신안군의 김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6년 신안군으로부터 마른김 제조기계, 정수시설, HACCP 시설 등 약 12억원을 지원받아 지난 2020년 압해읍에 시설을 완료하였다.

홍도식품 오인석 대표는 준공식에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지원해준 신안군에 감사하며 청정해역 신안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물건을 이용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국내 제일의 김 수출 기업이 있는 곳으로 신안 김을 세계적인 김으로 만들어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압해읍 송공리에 수출 김 유통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김 산업을 전락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에는 가공업체가 2020년 김 수출 7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김산업 중심지로서 매년 550여가와 함께 1,40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안=이명주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스카우터 한수원

